

第22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소동 (少童) 패 놀이



全 羅 南 道

少童패놀이 解説

麗川郡 召羅面 玄川리는 麗水에서 서북으로 12km쯤 가면 아름다운 매산(梅山)과 기암괴석이 우뚝 솟은 국사봉 기슭에 자리잡은 고색 짙은 마을로 140호에 1,042명의 주민이 농업을 중심으로 오성씨족(五姓氏族)들의 집촌마을이다.

이 마을에 옛부터 전승되어 온 소동패 놀이는 남도지방(南道地方)에 널리 전파되었던 공동작업(두레)을 하기 위한 패조직으로 20세 이상은 대동(大同)패, 16세 이상 19세까지를 소동패로 조직하여 농악·노래·춤등이 혼합되어 풀베기·김매기 등 공동작업시 고달픔과 지루함을 달래면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농민의 의지와 슬기가 집결된 생산적인 종합민속예술이다.

특히 전갈(傳喝)이란 엄격한 형식으로 집단의 자치의식(自治意識)과 團合을 도모하였던 現在의 새마을運動과 같은 협동체(協動體)의 일종(一種)이다.

* 놀이의 구성(構成)은 세마당으로 되어 있으며,

○ 첫째 마당은

조반소고(朝飯小鼓)를 울리면 마을 앞에 모여 령기(令旗)를 앞세우고 길소고를 치면서 들관으로 나가 김매기 소리에 맞추어 집단김매기를 한다.

○ 둘째 마당은

대동패로부터 전갈요청 신호가 오면 령쇠(令手)와 소고쇠가 대동패 두목(頭目)에게 정중한 전갈을 올린다. 또 소동패가 서로 만나면 영문(營門)을 잡고 한량(閑良)으로 놀 것인가(노래와 춤), 악(惡)으로 놀 것인가(힘겨루기)를 결정하여 대결한 후 진 편이 이긴 편에 영문전갈을 올려야 한다.

○ 셋째 마당은

승패가 끝나면 양편이 어울림굿 놀이를 하면서 화합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게 된다. 농악은 기교농악이 아니라 구마치 쇠가락에 범고놀이가 주축을 이루는 농민생활 농악이다.

민요는 박진감과 경쾌한 가락으로 동작과 놀이에 따라 다양하다. 현천리 소동패놀이 再現에 있어서는 70세 이상의 옛놀이꾼이 재현하게 되어 더욱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논매기 民謠歌辭

○ 영문전갈

녹포은갑은 상사로 조련하고 기치창검은 일월을 희롱하고
령은 군중지 영이요. 문은 장군지 문이라.
이 문을 티워 주시면 우리 소동 공좌총 뒤흘고 돌아 가겠나이다.

○ 논매기 노래

1) 문지요 ~ 소리

애 ~ 예혜 ~ 야 ~

문 ~ 지 ~ 요 ~

2) 산아지 타령

- ① 이지심 밀어서 풍년이 들어야
우리집 큰아들 장가를 보내지
〈후 령〉
애혜야 뒤야 예혜야 뒤여라 산아지로구나
밀어라 당겨라 지심을 밀어라
나락폭 상할라 조심히 밀어라
- ② 이지심 밀어서 풍년이 들어야
선영 앞에 제사를 걸게 걸게 지내지
〈후 령〉
- ③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네.
〈후 령〉
- ④ 삼산은 반락 청천외요.
이수중부 백로 주로구나.
〈후 령〉
- ⑤ 남산 봉학이 죽순을 물고
오동 숲속으로 넘노난다.
〈후 령〉
- ⑥ 불 별은 등에지고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하고 먹자서라
〈후 령〉

3) 잣은 어기야 소리

- ① 해당화 꽃송이 와질근 끈어다
마누라 머리에 꽃아나 주세
〈후 령〉
어이야 뒤야 애혜 ~ 야
여 ~ 예 ~ 혜 어기야
- ② 먼데 사람은 듣기도 좋게
북장고 장단에 논을 매세
〈후 령〉

- ③ 큰애기 숨씨로 술을 걸러
총각이 마시면 장가를 가지
〈후 령〉
- ④ 총각이 떠다준 궁초나 멍기
고운메 못무더 사성이 왔네
〈후 령〉
- ⑤ 흥갑사 멍기는 붙어야 좋고
크네기 소꼴 가랑이 넓어야 좋네
〈후 령〉
- ⑥ 다데였네 다데였네
논매기가 다데였네
〈후 령〉

4) 허리랑 소리

- ① 산중의 귀물은 머루나 다래
인간의 귀물은 갈보라 한다.
〈후 령〉
허렁 허렁 허러러리야 ~
허리랑 헐시고 허러리가 났네
- ② 저달은 떠서 대장이 되고
견우직녀는 후군이로구나
〈후 령〉
- ③ 울너머 담너머 짚비는 총각
눈치만 있으면 떡받아 먹소
〈후 령〉
- ④ 산꼴 큰애기 삼사마 이고
나만 보면 옆길음 친다
〈후 령〉
- ⑤ 저놈의 큰애기 눈매를 보아라
겉눈을 감고 속눈만 떴네
〈후 령〉